

韓醫藥器 문양 연구

백주현,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A Study on Patterns on Korean Medical Containers

Juhyun Beak, Sangwoo Ah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atterns are symbolic expressions of life style or sentiment of people as a product of culture. Furthermore, it is a type of language that the shape or implication does not change much over time. Patterns shown on the Korean medical containers are related to human life and health that they are not very diverse and splendid but closed used in real life. The medical containers include the alcohol container or tea-ware in broad sense, but under this study, it would be handled only for the Korean medical containers directly used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reatment of diseases. They would be the Medicine Mortar and Pestle that is used to grind the herbal medical ingredients, pots that hold the liquid decoction, containers to keep the medical ingredients in general conceptual use for medical purposes.

The patterns inscribed are classified in animal pattern, plant pattern or alphabet pattern. Turtle, crane, ginseng, and life patterns have the contemplation to pray for long life without disease or good fortune, while plum pattern, dragon pattern and the like are used in the medical containers used mainly in royal families with the social status and dignity shown. As such, patterns have not only ornament elements but also the symbolic implication to represent long life without illness for human. It provides the basic data of medical wisdom contained in the pattern and willingness of human to protect life from illness. On the basis of such research, it would require ensuing studies to make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e medical containers with the patterns in the adjacent countries in the days to come.

Keywords : Medical Containers, Korean Medicine, Pattern, Long life, Turtle, Ginseng, Symbol

I. 서론

紋樣은 한 민족 문화의 소산으로서 각 시대 대중들의 생활 풍습이나 정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오랜 역사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 민족의 보편적인 미의식을 축적시킨다.¹⁾ 뿐만 아니라 문양은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그 모양이나 의미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양의 발생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능성을 인정받는 몇 이론 중에 '기호 발생 연관설' 이 있다.²⁾ 이는 고대 인류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사물의 모양을

접수 ▶ 2010년 6월 30일 수정 ▶ 2010년 7월 23일 채택 ▶ 2010년 7월 29일
교신저자 안상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442 Fax 042-863-9463 E-mail answer@kiom.re.kr

1) 정복상, 정이상. 『전통문양의 응용과 전개』. 창지사. 1996. p.3.
2) 이승해. 「조선시대 묘역에 나타난 문양의 특성」. 『남양주조선시대문양탁본집』. 남양주향토사료관. 2002. p.163.

모방하여 그림을 새겨 의사 전달 수단으로 삼게 되었고 혹은 어떤 주술적인 효력을 빌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 지던 일종의 부적을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기호와 문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상형이 결국 문양의 시원이 된다³⁾는 내용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문양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새겨 넣었다는 것 보다는 문양을 새김으로서 얻게 되는 필요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傳統紋樣이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규명은 어렵지만 문양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표현하고자 하는 수단이고, 그 내면에는 그 시대, 그 사회의 사람들간에 공통된 내면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양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장식적 요소에 앞서 ‘의미의 전달’에 더 큰 비중을 두므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중요시된다. 이는 문양을 사용함에 있어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 장소,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말을 하는 그림’으로서의 문양은 한번 내뿜은 말보다도 더욱 크고 확실하고 오래도록 그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⁴⁾

한의약기에 나타나는 문양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것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실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며 상징성과 심미성, 자연적 조화로움의 추구, 기록적 의미를 담고 있다. 施紋된 문양은 動物紋, 植物紋, 文字紋 형태이며 龍, 人蔘, ‘壽’字 등을 새겨 넣었다. 또 어떤 한의약기에는 사용자의 이름을 써 넣기도 하고 상호나 제작 연월일을 새겨 넣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문양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 보고 전통 한의약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문양의 종류와 각 문양이 상징하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 문양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문양에 내포되어 의학적 지혜의 소산으로 여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통 의약기의 고유한 특성이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거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된 容器 및 기구인 한의약기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남아 있는 한의약기의 수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근대 시기를 거치며 훼손되거나 소멸되었다. 한의약기는 陶器나 金, 銀, 銅, 돌이나 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양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의 유물이 남아있는 陶器類, 石類, 木類, 銅類를 대상으로 장식한 문양 가운데 삼국시대부터 한의학의 대중화와 장식적 요소가 강했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⁵⁾ 연구방법은 국내전통 박물관이나 소장기관 및 각 대학 부속 박물관의 자료와 유물을 통해 문양의 종류와 성격을 파악하여 고찰·분석해 보았다.⁶⁾ 한의약기는 도구의 쓰임과 용도에 따라 채약도구, 약연기, 약탕기, 약성주기, 약장기, 제약기, 약도령형기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분화하여 살펴 보면 복령코챙이, 약땃돌, 약탕관, 초두, 약잔, 약사발, 한약틀, 약장, 약통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러나 모든 한의약기에 문양이 시문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藥器의 특성에 따라 문양이 공통적으로 시문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다만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한의약기 문양에 나타난 상징적, 심미적, 자연적, 기록적 의미를 고찰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려 한다.

2. 韓醫藥器의 개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질병의 역사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여러 가지 경험적인 치료행위를 해왔다. 또한 認知가 발달함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면서 그 원인에 대한 적당한 방법 등 대응책을 간구하게 되었으며 열매나 약재를 갈아서 치료를 위해 사용하거나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 한의약기가 사용되었다.⁷⁾

5)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한의학의 정립과 대중화를 엿볼 수 있는 시기로 한의약기에 대한 범주도 그 시기로 한정하였다.

6) 이 밖에 문헌고찰은 한국전통문양에 관한 국내외 단행본과 간행물 및 선행 연구된 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그림 자료는 유물의 도록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인용하고 소장처를 명기하였음을 밝혀둔다.

7) 임헌자. 「韓國 陶器器에 나타난 韓醫藥器 에 關한 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 1986. pp.1-6.

3) 임영주. 『한국전통문양』. 도서출판예원. 1998. p.17.

4) 이승해. 전게서. pp.163-164.



<Figure 1> 靑瓷陰刻雲龍紋象嵌尙藥局銘盒 <Figure 2> 靑銅鏹斗



<Figure 3> 龜形藥磨石



<Figure 4> 不老草藥磨石

일반적으로 한의약기라는 것은 한약재를 끓이거나 갈기 위한 도구, 침 등으로 생각되어지나 그 외에 의료적 행위로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서 그 사용범위와 종류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 酒器나 茶器 등도 의약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許浚(1539-1615)의 『東醫寶鑑』을 보면 苦茶(작설차)에 대해서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은 달고 쓰며 독이 없다. 기를 내리고 宿食을 소화시키며,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소갈(당뇨병)을 멎게 하고 잠을 적게 자게 한다. 또, 굵거나 묽은 음식의 독을 풀어준다.’⁸⁾고 하였다. 또 李晔光(1563-1628)의 『芝峯類說』에는 ‘소주는 元代에 생긴 술인데, 오직 이것은 약용으로만 쓸 뿐으로 함부로 먹지는 않았다. 그런 이유로 풍속에 작은 잔을 가지고 소주잔이라고 했다.’⁹⁾라 하여 술이 약용으로 쓰였던 것을 알 수 있고,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古阜郡에도 작설차는 약재 명으로 적혀 있다.¹⁰⁾ 이를 통해 차를 마시던 茶器가 약용으로 겸하여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酒器나 茶器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된 한의약기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나¹¹⁾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쓰이는 한의약기로 한약재를 갈기 위한 약연과 끓이기 위한 약탕기, 약재를 보관하기 위한 용기, 약을 저장할 때 쓰는 기구, 달여낸 약재를 담거나 따르기 위한 용도로 마시기 위해 관련된 기구들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되어 질병을 치료하는 약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8) "性微寒[-云冷], 味甘苦, 無毒. 下氣, 消宿食, 清頭目, 利小便, 止消渴, 令人少睡. 又解灸炒毒."

9) "燒酒出元時, 而性爲藥用, 不敢放飲, 故俗謂小盃曰燒酒盞."

10) 안상우, 강연석. 『옛지리지 속의 한의학』.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p.129.

11) 酒器나 茶器를 한의약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水, 茶, 酒 등 실생활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약만을 담고 따르기 위한 ‘한의약기’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II. 韓醫藥器 문양의 종류와 특징

1. 動物紋

1) 龍

모든 실제 동물과 상상 속 동물들의 능력과 장점을 취합하여 만들어낸 동물이 바로 용이다. 용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석되며 무속 신앙이나 민간신앙에서는 불가항력적인 힘의 원천으로, 불교에서는 벽사신, 수호신으로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용을 水神으로 섬기면서 풍요와 안전을 빌었고 궁중에서는 용을 임금의 권위에 비유하여 여러 장식 문양으로 활용하였다. 民家에서는 용 그림을 그려 대문에 붙여 놓고 용의 능력을 빌려 잡귀신을 물리치고자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문방구 등 매우 넓은 영역에 걸쳐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에 활용되었다.¹²⁾ 중국 명나라 때 학자 李時珍(1518-1593)은 『本草綱目』에 “용의 머리는 낙타요,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은 뱀, 배는 이무기, 비늘은 잉어, 손톱은 사나운 매, 손바닥은 호랑이와 닮았고 등줄기 한가운데에는 81개의 커다란 비늘이 있다.”¹³⁾ 고 용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예부터 용은 못, 강, 바다와 같은 물 속에 살며 비와 바람을 일으키거나 물고 다닌다고 여겨져 왔다. 용은 당연히 물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용이 (물이 증발되어 올라간 결정체인) 구름을 물고 다니고 비를 내린다는 믿음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이 때 구름은 땅에 흩어져 있는 陰氣가 하늘로 올라가 뭉친 것이고 빗방울은 그 구름이 흩어져

12)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2004. pp.92-95.

13) "頭似駝, 角似鹿, 眼似兔, 耳似牛, 項似蛇, 腹似蜃, 鱗似鯉, 爪似鷹, 掌似虎, 是也. 其背有八十一鱗."



<Figure 5> 鐵佛易刻雲鶴梅竹鹿紋盒 <Figure 6> 生藥山中不老長生銘藥末



<Figure 7> 青華白磁龜圖幅文唾具 <Figure 8> 白磁人參紋藥易罐

땅으로 떨어지는 陽氣이므로 비는 용의 신성한 기운을 지닌 특별한 물로 여겨졌다.¹⁴⁾ 또한 여기에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된다는 ‘天一生水’라는 개념과 용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무관하지 않다. 우리말로로는 용을 ‘미르’라고 하는데 미르는 물의 옛말인 ‘믈’이 어원이 되며 이를 통해서도 용은 물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용을 뜻하는 ‘미르’에 시내, 개울을 의미하는 ‘내’가 합쳐진 우리말 ‘미리내(은하수)’에서 볼 수 있듯이 용은 신성한 기운을 가진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다. 이 밖에 용은 물을 주재하는 수신으로서,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주는 등 다양한 성질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의탁하여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는 바가 성취되기를 빌었다.

이렇듯 신성시 되어 있는 龍문양은 주로 왕실에서 사용하는 약기에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유물로는 보물 제646호인 靑瓷陰刻雲龍紋象嵌尙藥局銘盒(고려 12세기, 한독의약박물관)의 용 문양에서 엿볼 수 있다 <Figure 1>. ‘尙藥局’이라는 글자가 상감된 뚜껑이 있는 청자 그릇으로 왕실용 약그릇답게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왕을 상징하여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용이 상징하는 福과 長壽를 기원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약을 끓이거나 데우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靑銅鑊斗(삼국시대, 5-6세기, 한독의약박물관)에는 용의 머리가 입체감 있게 조각되어 있어 지배계층이 사용했던 의약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Figure 2>.

14) 박영수. 『유물 속의 동물 상징 이야기』. 내일아침. 2005. pp.16-20.

2) 龜

거북은 地神 혹은 水神을 상징한다. 거북의 네 다리는 세계의 네 구석을 나타내며 땅과 물을 자유로이 오가며 세상을 지배한다. 물과 땅에서 모두 살 수 있는 ‘수륙 양생’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능력이다. 물속에서 3분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북의 그 점을 높이 평가하여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¹⁵⁾ 또 예로부터 긴 수명 때문에 거북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여겼다. 옛 사람들은 거북의 수명이 3천년이라고 믿는가 하면 거북을 먹으면 1천년을 살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장수하는 사람에게 더욱 만수무강하기를 빌 때에 ‘龜齡鶴壽’라는 글씨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우연하게도 거북은 『東醫寶鑑』의 주저자인 허준과도 인연이 깊다. 허준의 호는 龜巖으로 자신이 자라고 정 들었던 龜巖(일명 탐산)이란 지명을 호로 택하였다.¹⁶⁾ 『동의보감』에도 거북의 약효에 대해서 실고 있는데 龜甲은 거북의 등딱지로 “심을 보한다. 거북은 영물이라서 심을 보하는 효험이 많고 가루내어 조금씩 먹으면 좋다.”¹⁷⁾고 기록되어 있다. 또 龜尿는 거북의 소변으로 “오랫동안 귀가 먹은 것을 치료한다¹⁸⁾.”고 되어 있다. 이 밖에 活龜丸, 龜肉 등 거북의 효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15) 박영수. 전제서. p.70.

16) 거북은 장수의 의미 뿐 만 아니라 수호자로서 방어개념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터의 입구나 군사적인 시설에도 거북의 모양을 형상화하여(거북선 등) 이용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허준은 자신이 자란 龜岩을 호로 삼은 것이다.

17) 『東醫寶鑑』 內景篇 卷之三, 心臟. "龜甲; 補心. 龜靈物, 故補心甚驗. 作末點服良. 『丹心』"

18) 『東醫寶鑑』 外形篇 卷之二, 耳. "龜尿; 治久聾. 取得尿, 盛靑葱管中, 滴入耳中. 取尿法, 以明鏡照龜, 龜淫發放尿. 又艾灸其尻亦放. 『丹心』"



<Figure 9> 人蔘紋藥臼搗器



<Figure 10> 螺細人蔘匣



<Figure 11> 白磁李花文唾具



<Figure 12> 白磁黃金李花文湯計器

거북 문양은 고려시대 약기인 龜形藥磨石(고려 12-13세기,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유물에는 거북의 모양이 입체적 표현되어 있다 <Figure 3>. 이와 함께 고려시대 멧돌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약 멧돌인 不老草藥磨石(고려 12-13세기, 한독의약박물관)의 윗쪽은 불로초, 구름, 학을 조각했으며 밑쪽의 대략적인 윤곽은 거북이를 묘사하고 있다 <Figure 4>.

3) 十長生

藥盒은 약을 담는 뚜껑 달린 그릇으로 내용물이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鐵砂陽刻雲鶴梅竹鹿紋盒(조선 17-18세기, 한독의약박물관)에는 사슴과 구름, 대나무 등이 조화를 이루어 시문되어 있는데 十長生 문양은 동양의 관념에서 가장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은 장생사상이라 하겠다 <Figure 5>. 장생불사에는 열 가지 사물이 있는데 거북이, 학, 소나무, 사슴, 태양, 구름, 영지, 대나무, 물, 불로초를 말하는 것이며, 십장생 문양은 이상의 열 가지 대표적인 장생 상징물을 한데 묶어서 조화시킨 문양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장수하고 싶어 하는 염원과 잘 살고 싶다는 기원을 문양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상징적인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유물인 生藥山中不老長生銘藥床(조선 17세기, 동서의약박물관)에는 不老草가 상판에 크게 새겨 있다. 상판 상하에는 큰 글씨로 ‘生藥’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고 좌우에 세 자씩 나누어 작은 글씨로 ‘山中不老長生’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는 불로장생을 염원하는 인간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Figure 6>.

4) 蝙蝠

박쥐는 하늘나라의 쥐라고 하여 天鼠라고 하며, 신선의 쥐라고 하여 仙鼠라고도 한다. 박쥐를 행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해석하는데는 박쥐의 한자어 蝙蝠의 박쥐복[蝠]자를 복복[福]자로 해석하는데서 비롯되었다. 보통 다섯 마리의 박쥐는 五福을 의미하고 다수의 박쥐는 多福을 상징한다. 그래서 박쥐는 길상의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唾具¹⁹⁾는 가래나 침을 뱉는 용기로 靑華白磁蝙蝠文唾具(조선,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박쥐를 새겨넣었으며 복과 수명을 비는 뜻으로 시문되었다 <Figure 7>. 박쥐는 仙藥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데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중종 21년에 부안현 진사 崔弼成은 아비인 진사 崔秀孫이 惡疾에 걸리자 아비의 병이 박쥐를 잡아야 치유될 수 있다는 의원의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매마침 겨울이라 박쥐를 구할 수 없음을 하늘에 부르짖어 통곡하자 박쥐가 절로 날아와 이것으로 약을 만들어 먹이니, 곧 그 병이 치유되었다.²⁰⁾

이렇듯 박쥐는 중병 치유의 仙藥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또 『本草』에서는 ‘천년 묵은 흰 박쥐는 장수와 시력이 좋아지는 약이다’라고 하여 그 효험을 나타내고 있다.

2. 植物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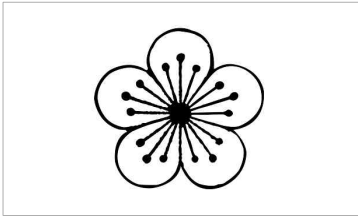
1) 人蔘

인삼은 귀한 약초로 불리우며 모든 병을 치유하는 약초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라면 ‘온갖 풀 종류의 영장’은 인삼이다.²¹⁾라고 하기도 한다.

19) 唾壺라고도 한다.

20) 『中宗實錄』 21년(1526 병술 / 7월 3일(갑신) 3번째기사) "扶安縣進士崔弼成 …… 父進士秀孫得惡疾, 彌留累月, 百藥無效. 醫云: ‘蝙蝠可治.’ 時當冬月, 求而不得, 號天而泣, 蝙蝠自至, 和劑以進, 厥疾乃瘳."

21) 이철성. 「개성 인삼이 왜 유명하게 되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2003(13). p.85.



<Figure 14> 李花文



<Figure 15>
靑華白磁延年益壽文壺



<Figure 16>白瓷靑畫七寶壽字銘藥鉢



<Figure 17>白瓷靑畫七寶壽字銘藥鉢

때문에 약기에 인삼 문양을 시문하게 된 것은 건강에 대한 기원과 장수의 매우 당연하고 직접적인 표현 방법이라 하겠다.

조선시대 白磁人蔘紋藥湯罐(조선 19세기, 동서의약박물관)에는 인삼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Figure 8>. 이는 인삼은 몸에 補益이 되는 약재이므로 시문 한 것이다. 같은 시기 유물인 약틀 人蔘紋藥壓搾器(조선 19세기,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윗판에는 人蔘이 새겨져 있는데, 아랫판에는 약사발과 밤이나 대추로 보이는 입가심용 과일이 음각되어 있다<Figure 9>. 螺鈿人蔘匣(조선 17세기, 한독의약박물관)에는 인삼 무늬가 나전 기법으로 갑 전체에 새겨져 있다<Figure 10>.

2) 李花

조선 후기 근대 유물인 白磁李花文睡具(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오얏꽃문양[李花文]²²⁾이 새겨져 있는데 몸통에는 몇 줄의 음각선이 있고 중앙에는 대한 제국의 문장인 오얏꽃문양이 그려져 있다<Figure 11>. 구연부에는 세척할 때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갈 대기를 씌웠으며 바닥에는 유약이 칠해져 있다²³⁾. 이 시대 황실에서 사용한 탕즙그릇인 白磁黃金李花文湯汁器(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에도 황실의 상징인 오얏꽃문양이 새겨져 있다<Figure 12>. 오얏꽃문양은 황제의 의복과 궁궐 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그릇, 기구, 가구 등에 사용되었으며 일반인의 사용은 금지했을 것으로 보인다<Figure 14>. 오얏꽃문양은 대한 제국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번식률이 왕성하고 많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한다. 또 “果珍李柰 菜重芥薑”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배로운 과일로 알려져 있다.

22) 오얏꽃문양[李花文]은 1897년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이후부터 황실의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23) 국립고궁박물관. 『고궁의보물』. 2007. p.21.

3) 竹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강하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사계절을 통하여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군자의 고매한 인품과 절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나무가 생활문양으로 사용될 때에는 절개나 지조를 상징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바위와 함께 묘사되어 祝壽를 상징하기도 하며 약기를 물리치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²⁴⁾ 대나무 문양이 새겨진 한의약 기로는 鍼筒(조선, 한독의약박물관)을 찾아볼 수 있다<Figure 13>. 한의약기에 시문된 대나무 문양은 대나무가 수명이 길고 사시사철 푸른 빛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수와 지조를 상징하며 평안을 의미한다.



<Figure 13> 鍼筒

3. 文字紋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글자에吉凶의 주술적인 힘이 내포되어 있다고 믿었다. 글자 자체의 생명력 유무는 논외로 치더라도 聲響美를 갖춘 데다 좋은 뜻까지 지닌 글귀라면 볼 때마다 눈을 즐겁게 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1) '延年益壽', '壽'

조선시대 靑華白磁延年益壽文壺(조선 18세기, 한독의약박물관)의 어깨부분에는 '延年益壽'의 글씨가 새겨져

24) 김수민. 「생활상품에 나타난 전통식물 문양 활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23.

25) 한독의약박물관. 『한독의약박물관』. 예맥. 2007. p.39.



<Figure 18> 白瓷靑畫壽字紋熱石 <Figure 19> 弱能制強銘藥碾



<Figure 20> 癸丑十二月二十二日銘藥碾 <Figure 21> 白磁배밀이

있다<Figure 15>. ‘延年益壽’는 수명을 더욱더 오래 늘여 나간다는 뜻으로 무병장수 및 복을 기원하는 의도로 표현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늘이 준 수명만큼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과 염원을 약기에 고스란히 담은 것이다. 또 다른 조선시대 유물인 白瓷靑畫七寶壽字銘藥沙鉢(조선 19세기, 한독의약박물관)에는 ‘壽’자가 시문되어 있다<Figure 16, 17>. 약기의 문자 문양에는 ‘壽’자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대의 찜질기 白瓷靑畫壽字紋熱石(조선 19세기, 한독의약박물관)<Figure 18>, 약 따르게 등 그 용도도 다양하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장수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었다. 장수를 표현하는 문양은 동·식물을 통틀어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壽’자를 표현하여 장수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2) 銘文

銘文이란 사전적 의미로 “金石이나 器皿따위에 새겨 놓은 글”을 말한다.²⁶⁾ 즉 금속이나 돌, 그릇 등에 관련된 정보 또는 글귀를 기록한 것으로 제작시기, 제작자, 좋은 글귀 등을 새겨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약기의 경우 그림을 새겨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약기도 있지만 명문을 새겨 그 뜻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유물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문양의 개념보다 훨씬 정형화된 형태이며 사실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약기에 시문된 여러 가지 사실적 명문 역시 문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 제작된 弱能制強銘藥碾(조선 후기, 한독의약박물관)에는 앞뒤 표면에 ‘弱能制強 柔能制剛’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Figure 19>.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제압하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뜻으로 중국의 兵書인 『三略』에 이와 관련한 대목이

있다.²⁷⁾ 약연은 약재를 갈아 가루로 만드는 도구로 약 하지만 연알을 이용해 부지런히 굴리면 어떤 약재도 가루로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표현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질병에 노출된 유약한 마음을 굳게 단련하기 위한 마음가짐의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희망 등을 새겨 적음으로써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목적도 엿볼 수 있다.

이 약연을 뒤집어보면 밑바닥 면에는 ‘庚午 丙火’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제작 연대를 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랫동안 사용한 듯 이 약연은 표면 조각들이 여러 군데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연알은 소실되었다.

명문이 새겨진 약연에는 癸丑十二月二十二日銘藥碾(조선 17-18세기, 한독의약박물관)도 있다<Figure 20>. 약연 앞뒤 표면에 ‘癸丑十二月二十二日’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제작한 해의 간지와 날짜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알에도 표면의 작은 이중원 안쪽에 ‘南洞’이라는 단어 4개를 음각으로 넣었다. ‘南洞’은 연알의 앞 뒷면에 똑같이 새겨져 있는데 아마도 지명일 것이다.²⁸⁾

배앓이를 할 때 따뜻하게 데워 배 위에 올려놓고 문지르기 위하여 만든 민간 의료 용구인 白磁배밀이(조선 19세기, 한독의학박물관)에도 명문이 새겨져 있다<Figure 21>. 표면에 ‘辛巳二月一日’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제작년도를 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 淸心丸, 牛黃 등 약재명이 직접적으로 써 있는 木類 藥筒도 있고, 劇藥을 구분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劇藥劑라고 새겨져 있는 乳鉢도 찾아볼 수 있다.

26)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27) 『三略』上略. “軍識曰 柔能制剛, 弱能制強. 柔者, 德也. 剛者, 賊也.”

28) 한독의약박물관. 전게서. p.24.

III.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의약기 문양은 장식적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병장수와 건강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일상생활 속의 전통 의약기로서 널리 쓰여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의약기 문양은 단순하게 무엇을 꾸미기에 그치는 장식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속에 조상들의 염원과 생활상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전통문양을 의미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되새겨 보는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자부심까지 심어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전통 한의약기에 나타난 문양을 통하여 한의약기가 우리의 전통적 삶에서 어떤 의미와 형태로 표현되었는지를 문헌, 유물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 보았다. 본론에서는 연구를 위해 수집한 한의약기 문양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규명하였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추출된 한의약기 문양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성이다. 한의약기의 문양은 크게 動物紋, 植物紋, 文字紋 으로 나눌 수 있으며 動物紋에는 龍, 龜, 十長生, 蝙蝠 문양이 있다. 이들 문양은 長壽와 福, 不老長生, 仙藥을 의미하고 있으며 길상의 의미로 시문되었다. 植物紋에는 人蔘, 李花, 竹 문양이 있다. 이들 문양은 병을 치유하는 직접적인 약초로서 의미와 악귀를 물리치는 辟邪적인 의미, 지조와 평안을 상징한다. 특히 李花 문양은 사용자의 위엄과 지위를 나타내어 보였다. 文字紋은 문구를 새겨 그 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는데 그 문자에는 수명을 오래 늘여 간다는 뜻의 ‘延年益壽’, ‘壽’자를 표현하여 직접적으로 장수를 기원하였다. 또한 ‘弱能制強 柔能制剛’이란 명문을 새겨 넣어 질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제작 연대를 표기한 유물도 있었으며 청심환이나 우황 등 약재명을 직접 새겨 넣은 명문도 찾아볼 수 있었다.

둘째, 심미성이다. 한의약기는 치료 도구이면서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어 왔던 생활도구이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의학적 지식의 발전과 함께 민족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예술 작품이기도 하다. 한의약기는 그

문양으로 인해 장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전체적인 조화와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특히 石類, 木類는 재질의 특이성을 살려 그 형태의 균형과 비례를 잘 나타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시대 약 뿔들은 윗쪽과 밑쪽의 구조를 잘 나타내서 현존해 있는 고려시대 뿔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문자문양 가운데서 ‘壽’자 문양의 경우 본래 가지고 있는 글자에 예술성을 가미해 시문되어 심미성이 돋보인다.

셋째, 자연적 조화로움의 추구이다. 한의약기의 용도를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문양의 자유로운 느낌을 살렸고 약기에 그 문양을 새김으로써 건강에 대한 희망을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약기로서의 기능을 먼저 고려한 것으로 단순한 장식을 위한 목적이 아닌 기능성을 염두해 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중국의 예로, 청대 18세기에 만들어진 黃玉御詩紋藥盞에는 詩文이 새겨져 있으며 청대 19세기에 제작된 殷際屏風式 救急藥瓶에는 해바라기 등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 특이성이 엿보인다. 이들은 장식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자연미를 강조한 약기의 특징과는 대조를 이루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기록적 가치를 지닌다. 銘文의 경우 장식적인 요소가 아닌 실물에 나타난 기록이기 때문에 문헌자료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명문을 살펴본 결과 한의약기의 제작시기와 제작자, 사용처, 그 외에 기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명문을 통해 그 한의약기가 언제 제작되었으며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었고, 더불어 한의약기가 쓰였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한의약기는 인간의 무병장수와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만든 의약기구이면서 옛 기록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예술품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문양의 특성이 더 수집된다면 주변국들과의 한의약기 문양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문양도 파악하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건국대학교박물관. 『전통의약기』. 1988.
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100선』. 2006.
3. 국립고궁박물관. 『고궁의보물』. 2007.
4. 국립문화재연구소. 『민간의약』. 1996.
5. 김수민. 「생활상품에 나타난 전통식물문양 활용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6. 남양주향토사료관. 『남양주 조선시대 문양 탁본집』. 2002.
7. 동산도기박물관. 『사진과 해설로 본 조선 분청사기와 백자』. 2006.
8. 동서의약박물관. 『한방의약기도록』. 발행년미상.
9. 동은의학박물관. 『동은의학박물관 전시 도록』. 2000.
10. 박영수. 『유물 속의 동물 상징 이야기』. 내일아침. 2005.
11. 산청한의학박물관. 『산청한의학박물관』. 2008.
12. 성장경. 「한국 도자기 문양의 회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13. 안상우. 「관소리 <수궁가> 醫學記事에 내포된 역사성과 조선후기 민중 의학지식의 보급」. 『호남문화연구』. 2010;46.
14. 안상우, 강연석. 『옛 지리지 속의 한의학』. 한국한의학 연구원. 2010.
15. 이철성. 「개성 인삼이 왜 유명하게 되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2003;13.
16. 임영주. 『전통문양자료집』. 미진사, 1986.
17. 임영주. 『한국전통문양』. 도서출판예원. 1998.
18.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2004.
19. 임헌자. 「韓國 陶瓷器에 나타난 韓醫藥器에 關한 研究」.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20. 정복상, 정이상. 『전통문양의 응용과 전개』. 창지사. 1996.
21. 한독의약박물관. 『한독의약박물관』. 예맥출판사. 2007.
22. 한독의약박물관. 『고의약기도록』. 1979.
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2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25.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